

보험산업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판매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편, 2023년 이후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부채 평가 체계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는 투자 수익 확보와 안정적 자본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만기 10년 국고채 수익률은 2023년 3월 말 3.340%에서 2025년 12월 말 3.385%로 거의 변화가 없어 투자 수익의 확보 여건은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본자본비율⁵⁴⁾ 및 듀레이션 갭⁵⁵⁾ 규제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본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는 당면 과제를 해소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되고, 장기보유주식의 적용 범위가 비상장주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적격 인프라의 범위도 신재생에너지·AI 기반시설 등으로 넓어졌으며, 적격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수준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지급여력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약되었던 자산군에 대해 기대수익률 대비 요구자본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그간 활용이 미진하였던 매칭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등에 연계한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수익률을 매칭조정에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적 금융 참여는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다만 투자 확대가 그 자체로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산업의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 구조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라는 구조적 기반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

5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1. 14.),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질 개선-”

5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10. 20.),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는 현물 매입에 비해 적은 자금으로 동일한 위험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투자 여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험업의 위험관리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그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 요구자본을 직접 축소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개정될 매칭조정을 활용할 경우 보험부채 평가액이 축소되어 가용자본 확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투자수익률 하락과 자본관리 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적 자산의 장기 현금흐름에 부합하는 상품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역량 자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산운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및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자구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금융당국 역시 자본규제 합리화와 함께 매칭조정 활성화, 회계제도 정비 등 보험산업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